



# 2015년 봄철 전망

## 목 차

- I. 2014/2015년 겨울철 기상특성
- II. 엘니뇨 전망
- III. 봄철 전망
- IV. 황사 전망
- V. 최근 10년 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VI. 여름철 기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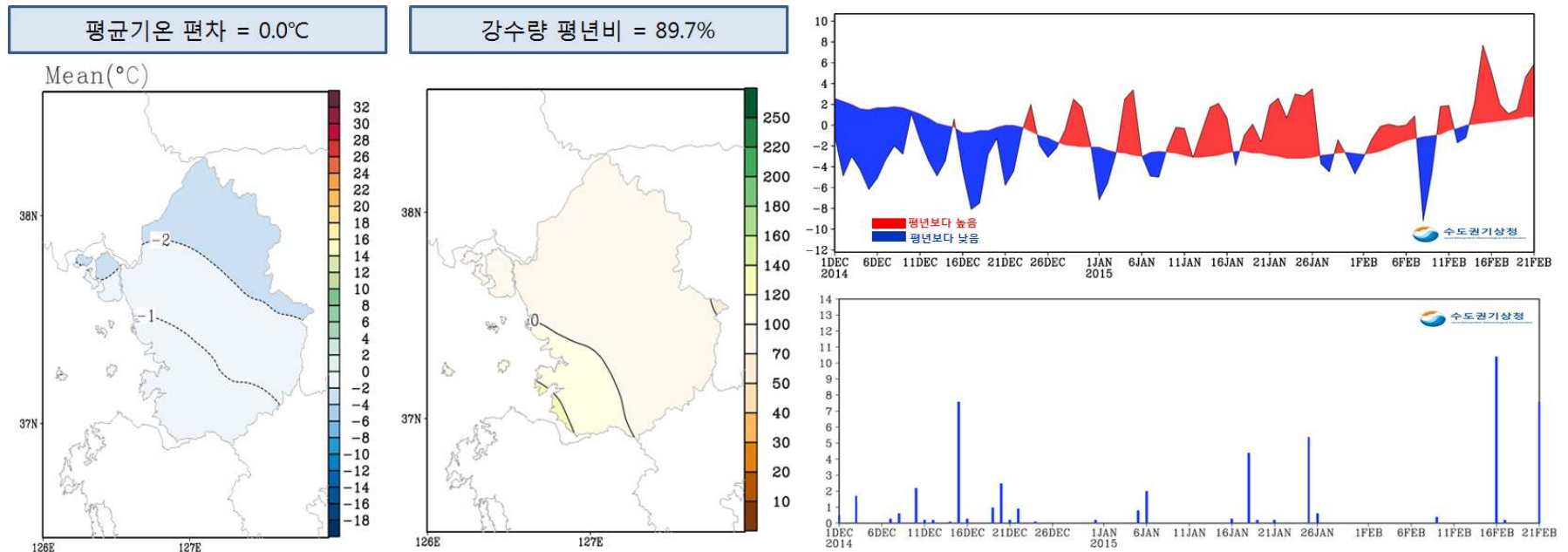


수도권기상청

# I. 2014/2015년 겨울철 기상특성

## 1. 기온과 강수량(2014.12.1~2015.2.20)

- 겨울철 평균기온은 - 1.2°C로 평년(-1.2°C)과 같았음.
  - 12월 평균기온은 - 2.6°C로 평년(0.1°C)보다 - 2.7°C 낮았으며, 1월에는 - 1.1°C로 평년(-2.8°C)보다 - 1.1°C 높았고, 2월에는 0.6°C로 평년(-0.7°C)보다 1.3°C 높았음.
- 겨울철 강수량은 50.6mm로 평년(56.0mm)대비 89.7%와 비슷하였음.
  - 12월 강수량은 18.4mm로 평년(21.0mm)과 비슷하였으며, 1월에는 13.7mm로 평년(20.1mm)보다 조금 적었으며, 2월에는 18.5mm로 평년(14.9mm)과 비슷하였음.



[그림 1] (좌) 겨울철 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평년비 분포 (우) 일평균기온 편차와 강수량 시계열(2014.12.1 ~ 2015.2.20)

## 2. 겨울철 특이기상

### ○ (12월) 평년보다 낮은 기온(-2.0℃)과 서해안 잦은 눈

- 대륙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가운데 전반에는 동아시아지역 상층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속적으로 한기가 유입되었고, 이후에는 대륙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상층 기압패턴이 형성되어 중순까지 추운 날이 이어졌음.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지방에 눈이 자주 내렸음.  
※ 12월 일최심적설(cm) 극값 경신 현황: 3일 수원 5.5(1위), 서울, 인천 3.3(2위)

### ○ (1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1.5℃)

-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약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올랐음.  
※ 2014년 12월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0.5℃, 2015년 1월(최한월) 평균기온은 0.5℃로 12월보다 1.0℃높았음.  
※ 1973년 이후 1월 평균기온이 전년도 12월보다 높았던 해: 1988/1989년, 2001/2002년, 2005/2006년

### ○ 기온변화가 큰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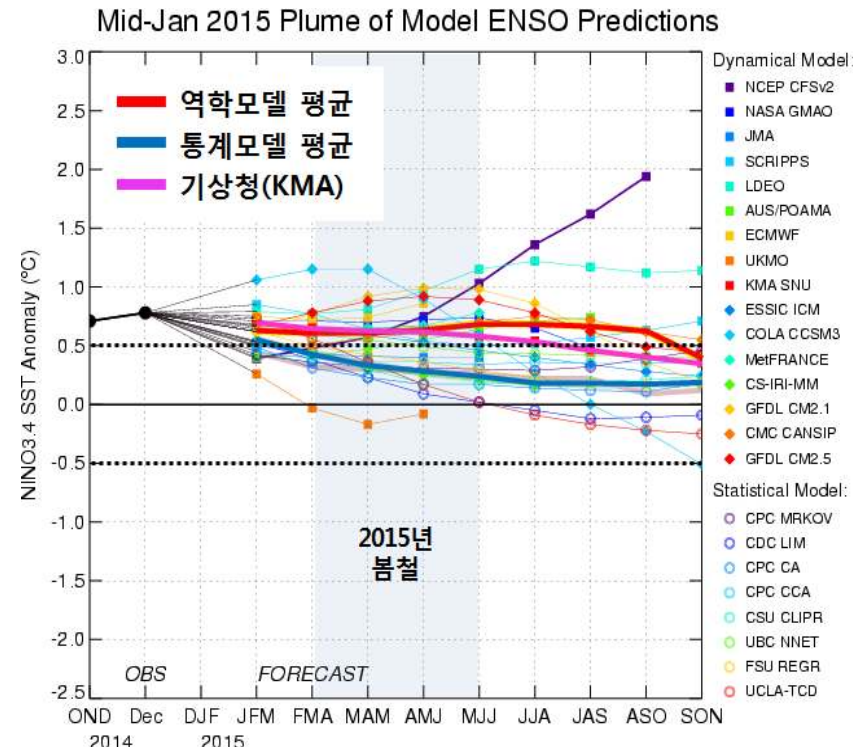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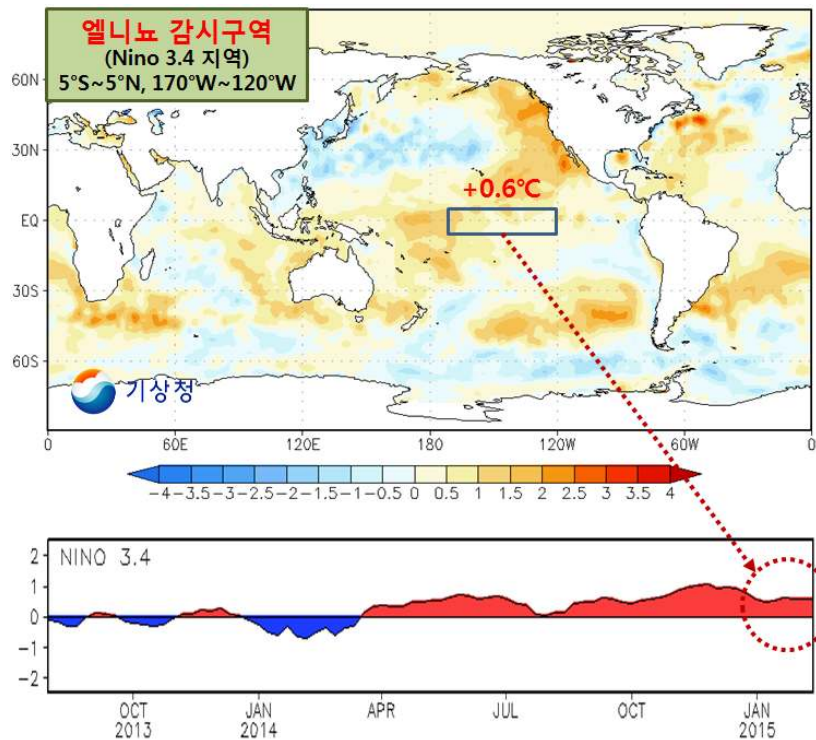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두 차례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의 변화가 매우 컸음.

## II. 엘니뇨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약한 엘니뇨가 지속되고 있으며, 봄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 : 12월 +0.9°C, 1월 +0.6°C, 최근(2월 8~14일) : +0.6°C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 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 온도 편차가 0.4°C이상(-0.4°C 이하)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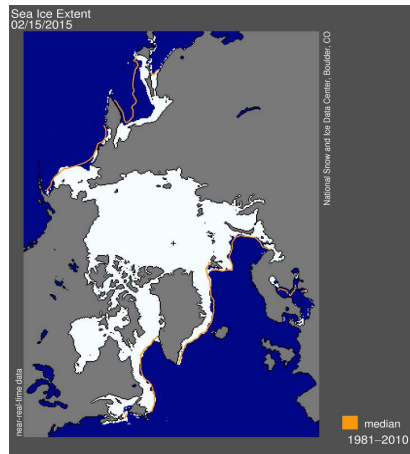


[그림 2] (좌)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 편차 현황(2015.2.8~14) (우)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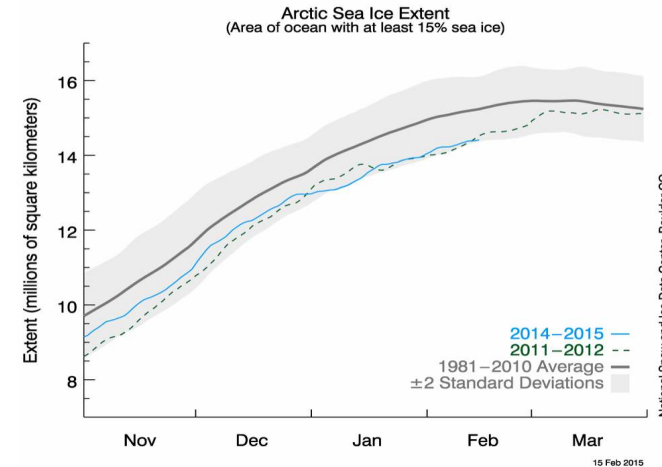
### Ⅲ. 봄철 전망

#### 1. 기후감시 및 분석

- 지난해부터 약하게 지속되고 있는 엘니뇨가 봄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기와 해양의 결합정도가 약하여  
⇒ 이번 엘니뇨가 원격상관으로 우리나라 봄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가을철부터 카라-바렌츠 해의 해빙면적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 봄철 전반에 우리나라로의 강한 한기유입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몽골 및 중국대륙에서의 눈덮임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상태이며,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 강한 대륙고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은 낮으나, 일시적으로 발달하여 봄철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좌) 최근 북극 해빙면적 분포(2015.2.15.)



(우) 북극해빙면적 시계열(11.1~2.15)

## 2. 봄철 전망

전반에는 대륙고기압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후반에는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표 1] 예보 요약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3월	5.9	30	45	25	56.4	30	45	25
4월	12.2	20	45	35	78.5	25	40	35
5월	17.2	30	40	30	101.7	30	40	30

### ○ 날씨전망

- 3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월 :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5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장기에보는 특정 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3개월 이내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에 대해 평균된 날씨 경향을 예보하며, 단기에보에 비해 정확도가 낮으나 정보 제공을 위해 발표됩니다.

[표 2] 확률예보 해석 기준

확률예보 값			해석
평년보다 낮음(적음)	평년과 비슷	평년보다 높음(많음)	
10	30	60	평년보다 높음(많음)
20	30	50	
20	35	45	평년보다 높거나(많거나) 비슷
25	35	40	
25	40	35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30	30	40	평년과 비슷
30	40	30	
25	50	25	
40	30	30	
35	40	25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40	35	25	평년보다 낮거나(적거나) 비슷
45	35	20	
50	30	20	평년보다 낮음(적음)
60	3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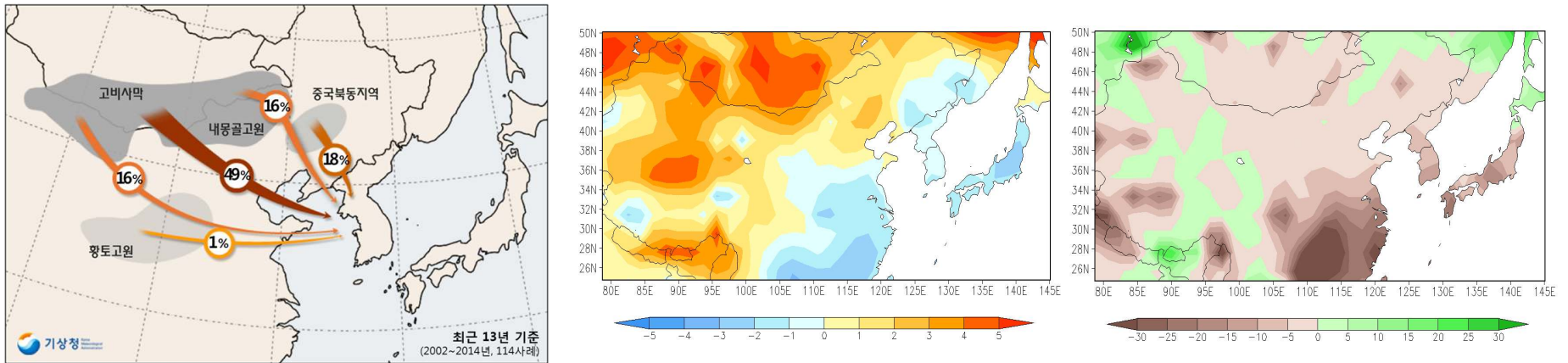
- 3분위 중 어느 하나가 50% 이상이면, 하나로 발표

- 3분위 중 50% 이상이 없으면, 35% 이상인 것을 모두 발표 (단, 하위 2개가 동률일 경우(40:30:30)에는 '평년과 비슷'으로 발표)



## IV. 황사 전망

- 올 봄철 황사의 발생일수는 **평년(5.2일)**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황사발원지에서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고 고온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남동~남서류가 주로 나타나면서 황사가 유입되기 어려운 기류조건이 형성되겠음.
  - 그러나,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음.



[그림 4] (좌) 황사발원지와 이동경로 (중) 평균기온 편차(°C) (우) 강수량 편차(mm) 분포(2015.2.1~13)

[표 3] 황사일수 전국 평균값 (단위: 일)

	3월	4월	5월	봄철
1981 ~ 2010년 (평년)	1.8	2.4	1.0	5.2
2005 ~ 2014년 (최근 10년)	2.3	1.5	1.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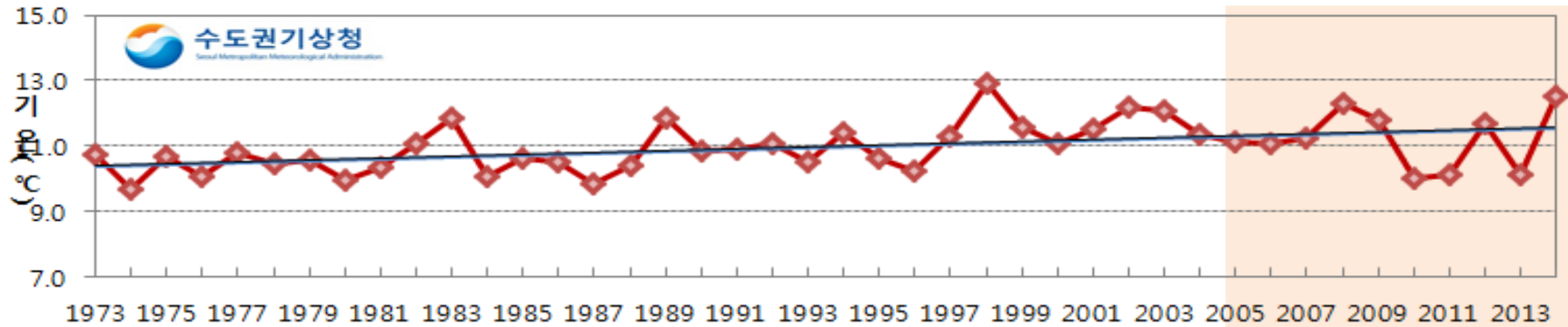
※ 황사일수 : 전국 17개 목측 관측지점 중 황사가 관측된 지점의 일수를 전체 지점수로 나눈 평균값

## V. 최근 10년(2005~2014년) 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1. 기온과 강수 특성

####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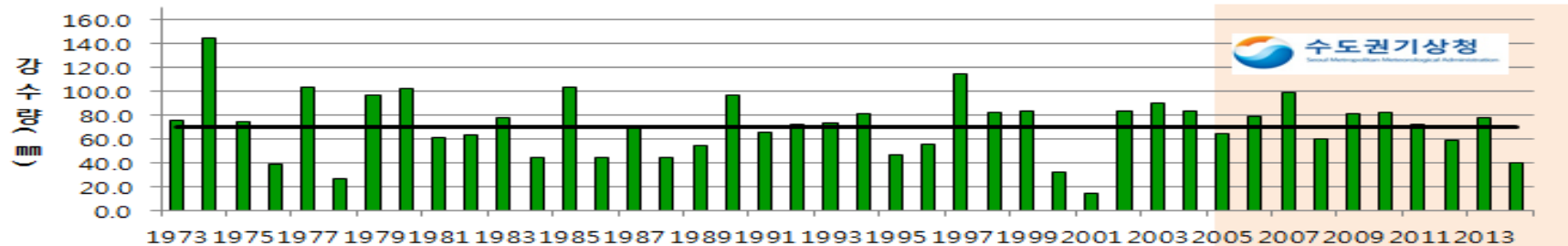
- 최근 10년 봄철 평균기온은 11.2°C로 평년(11.1°C)과 비슷하였음.



[그림 5] 연도별(1973-2014) 봄철 평균기온

#### ○ 강수량

- 최근 10년 봄철 강수량은 71.3mm로 평년(69.9mm) 대비 102%를 기록하였음.



[그림 6] 연도별(1973-2014) 봄철 강수량

[표 4]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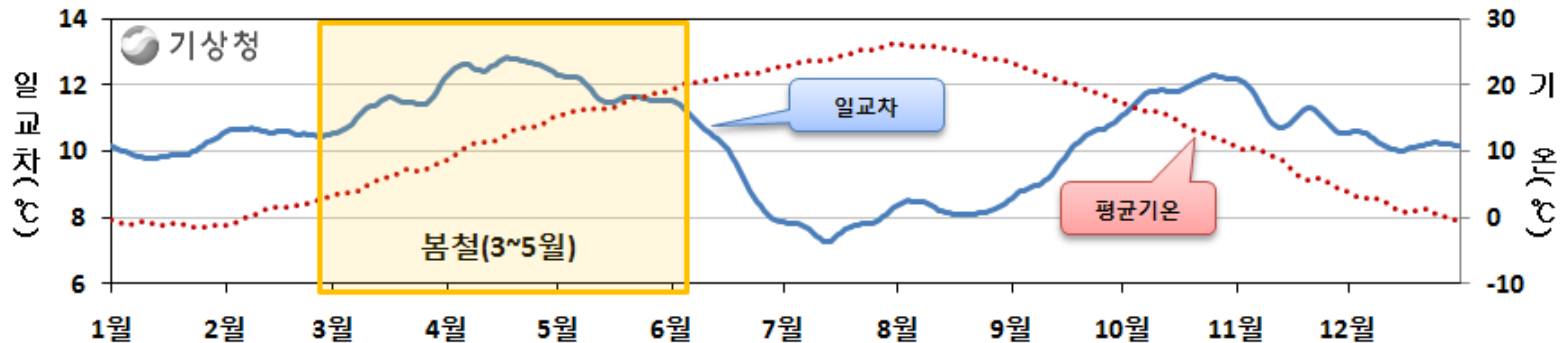
기후 요소	단위	3월	4월	5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6.2(+0.3)	11.9(-0.3)	17.7(+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12.0 / 0.8	18.2 / 6.0	23.8 / 12.0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62.8 / 8.7	80.8 / 8.8	103.9 / 8.5
일조시간	시간	200.8	205.8	225.6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13.8	1.9	0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7.9	19.3	20.1
황사일수	일	2.3	1.5	1.5

※ 기온·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황사일수는 17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일교차

- 연 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은 봄철이며, 특히 4월에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7] 평년(1981-2010) 일교차와 평균기온 일변화

## 2. 특이기상 및 영향

### ○ 저온현상

- (2014년 5월 3~9일) 캄차카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으며, 6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대관령에 눈이 내렸음(대관령에 눈이 가장 늦게 온 날 기준 :33년만[1981. 5.17], 5월에 눈이 온 날 기준 23년만[1991.5.2]).
- (2014년 4월 4~6일) 서고동저형태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북서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쌀쌀한 날씨가 나타났으며, 평균 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기온 -3.2[1위 1996년 -3.4], 평균 최고기온 4.1[1위 1997년 4.2]).
- (2013년 4월) 상순 후반부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1.6[1위 1996년 -2.1]), 개화기였던 배, 복숭아 등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3~4월) 찬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장하여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저기온 -1.1[1위 1996년 -1.5]). 과수농가에서는 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 작물의 수확시기 지연에 따른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어민들은 제철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었음.
- (2010년 3~4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한기유입이 잦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며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음. 특히 일조량의 부족으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2.6). 잦은 강수와 저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였음.
- (2005년 2~3월) 찬 대륙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의 변동 폭이 큰 가운데 추운 날이 많아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1.6[1위 1984년 -3.0]).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전남 해안의 양식장에서는 승어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음.

### ○ 고온현상

- (2014년 5월 하순) 중순부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낮에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일부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되었음(제주 27일, 강릉 29일, 31일).
- (2014년 3월) 중순 후반과 하순에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3월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며,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2위, 3위 1위를 기록하였음(편차(°C) : 평균기온 +1.8[1위 2002년 +2.0], 평균 최고기온 +1.7[1위 2002년 +2.5], 평균 최저기온 +1.6).
- (2013년 3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았으며,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3, 평균 최고기온 +4.0[1위 1998년 +3.2, +4.3]). 9일에는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
- (2012년 5월) 고온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기온 및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편차(°C) : 평균기온 +1.1, 평균 최저기온 +1.5).

- (2009년 5월 상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3.7). 모기가 대량 번식하여 극성을 부렸음.
- (2008년 3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편차(°C) : 평균 최고기온 +4.0 [1위 2002년 +4.2]).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C 이상으로 올라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여름옷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 대설

- (2013년 3월 20일) 북고남저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어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20일 최심신적설(cm) : 북강릉 17.7, 속초 15.0, 대관령 7.4).
- (2010년 3월 17~18일)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해 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18일 최심적설(cm) : 천안 15.2, 청주 12.7, 대전 10.1, 서산 9.2, 수원 6.9 등).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고 눈길에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 건조한 시기에 강수량이 공급되어 농사에는 도움이 되었음.
- (2010년 3월 6~10일) 6~8일에 북고남저의 기압배치에서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최심신적설(cm) : 7일 속초 11.9, 북강릉 11.4, 8일 속초 18.0, 북강릉 16.5, 동해 8.3), 9~10일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10일 최심적설(cm) : 동두천 21.2[관측 이래 3월 극값 1위], 서울 13.5, 원주 11.7, 포항 11.3, 통영 4.1[관측 이래 3월 극값 1위]). 눈 무게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시설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고, 과수나무와 소나무 등이 부러지는 등 2백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5년 3월 4~6일) 북고남저의 기압배치를 이루는 가운데 상층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강원 및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최심적설(cm) : 5일 동해 90.0, 울진 57.6, 속초 55.0, 강릉 53.5, 포항 20.7, 6일 부산 37.2[관측 이래 극값 1위]). 버스와 항공 등 주요 교통이 통제 되고, 부산항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10만여 m<sup>2</sup>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총 3백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 건조 및 가뭄

- (2012년 5~6월) 5월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자주 나타났고, 6월에는 오호츠크해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해 장마전선의 북상이 지체되어 장마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강수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1973년 이래 5~6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음(월강수량 110.9mm[평년대비 43%]). 농업용수 부족과 한강 및 낙동강 하천에서 녹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4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현상이 있었으나, 그 양이 적어 1973년 이래 4월 강수량이 네 번째로 적었음(월강수량 35.0mm[평년대비 45%], 1위 2001년 25.5mm). 댐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산불 등 화재발생이 증가하였음.
- (2006년 3월)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남쪽에서는 수증기 공급이 적어 1973년 이래 3월 강수량이 두 번째로 적었음(월강수량 13.4mm[평년대비 24%], 1위 1973년 9.1mm). 수돗물과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었음.

## ○ 많은 비

- (2014년 4월 29일) 하순 후반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이 일본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으로 인해 느리게 이동하여 27~29일에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고, 29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일 강수량(mm))[4월 극값 1위] 강릉 119.0, 울진 180.4). (일 강수량(mm): 강릉 119.0, 울진 180.4 [4월 극값 1위]).
- (2013년 5월 27~28일)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느리게 통과하고, 남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음(27~28일 누적강수량(mm) : 남해 221.5, 진주 199.5, 장흥 182.0, 창원 171.0, 여수 164.3 등).
- (2011년 4월 30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대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4월 극값 1위 : 수원 136.0, 제천 112.5, 충주 101.0, 홍천 94.5 등].
- (2010년 5월 18일) 기압골이 통과하는 가운데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보성군 189.5, 창원 121.0, 남해 104.0, 진주 100.0 등).
- (2006년 5월 6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일강수량(mm) : 강화 142.5 [5월 극값 1위], 파주 110.5, 진주 139.5, 장흥 114.5, 부안 80.0 등).

## ○ 황사

- (2011년 5월 1~4일)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2일 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 흑산도 1025, 고산 731, 진도 662 등)가 관측되었음. 공기청정기의 판매가 증가하였음.
- (2010년 3월 20~21일) 몽골에서 발원하여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20일 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 흑산도 2712, 대구 2684, 울릉도 2227 등)가 관측되었음. 농도는 짙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황사가 빠르게 물러나 큰 피해는 없었음.
- (2008년 3월 2~3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황토고원과 산둥반도를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 2일 대구 1428, 광주 1330, 추풍령 1291, 3일 구덕산 1190, 진주 721 등)가 관측되었음. 일부 초등학교는 임시휴교를 실시하였음.
- (2007년 3월 31일~4월 2일) 3일에 걸쳐 내몽골에서 고농도의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짙은 황사(시간평균,  $\mu\text{g}/\text{m}^3$ ) : 31일 백령도 1283, 1일 대구 2019, 대관령 1911, 구덕산 1632, 관악산 1233 등)가 관측되었음.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고, 초등학교는 임시휴교를 실시하였음.
- (2006년 3월 10~11일) 고비사막에서 발원하여 내몽골과 발해만을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11일 최고농도(시간평균,  $\mu\text{g}/\text{m}^3$ ) : 대관령 1022, 영덕 848 등)가 관측되었음. 휴일에 공원이나 유명산의 이용객이 급감하였음.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 짙은 황사 :  $400\sim 800\mu\text{g}/\text{m}^3$  일 때 / 약한 황사 :  $4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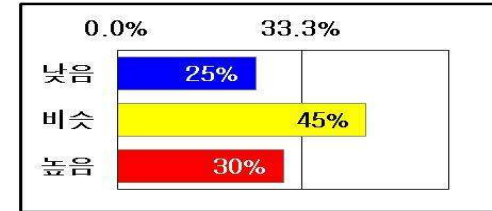
# VI. 2015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정상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 기온 전망

평년(23.6℃)과 비슷하겠음.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경향을 보이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2. 강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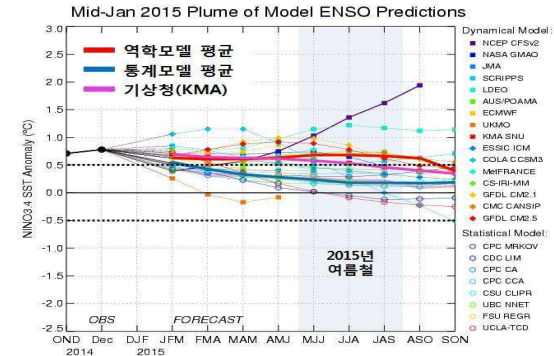
평년(723.2mm)과 비슷하겠음.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여름 전체로는 평년과 비슷한 강수 분포를 보이겠음.



## 3. 엘니뇨 전망

엘니뇨 감시구역(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여름철 동안 정상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여름철에 대한 3개월 전망(2015년 6월~8월)은 2015년 5월 22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기후전망은 계절에 관한 평균상태를 3분위(낮음/적음, 비슷, 높음/많음)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산출함. 백분율이 33.3% 이상일 경우 해당 단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임.